

가을바람 부니 山寺 축제도 흥겹다

고창 선운사 9월 22~23일 선운문화제 개최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가 9월 22~23일 제 5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KBS 찾아가는 음악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운사의 가을'이라는 부제가 붙은 선운문화제는 보은염 이운행사와 산사음악회,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보은염 이운행사는 선운사 부처님개공 양양을리는 김단리 주민들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렸다. '보은염(報恩鹽)'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다. 이는 1500년전 양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일러준 선운사 장간주 김단리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해마다 양질의 소금이 생산되는 봄과 가을이면 절에 소금을 시주했다.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 일제강점기 지금의 천일염으로 소금채취하는 방법이 보급되면서 명맥이 끊겼다가 최근들어 선운문화제에 그 모습을 재현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

'KBS 찾아가는 음악회' 눈길 전통 있는 보은염 이운행사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 인기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열리게 될 산사음악회는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소프라노 김주연, 하프스트 광정 등이 함께 하는 클래식 위주의 음악으로 구성되며 가수 박안규가 출연한다.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는 23일 50개팀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대회일정이 고시되기 전부터 대회참가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지역 청소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 역시 노래, 단체댄스, 연주, 밴드, 국악 등 각 분야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경연을 펼친다. 각 부문별 우승자들에게는 전북교육감상, 고창 교육장상, 선운사주지사상, 동국대 총장상, 고창군수상이 마련되어 있다. 경연대회 관람객들과 1천여 명원학생들



선운사이기
전북 고창 선운사가 9월 22~23일 제 5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청소년음악놀이경연대회 장면.

소 학술대회-10월 8일, 동국대 정각원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특히 동국대 정각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선운사 대강백 석전 박한영 스님의 시문학을 주제로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이중찬 교수가 '석전의 한시 세계', 김상일 교수가 '석전의 한문학 및 한문학사론', 고재석 교수가 '석전 문학의 근대문학사에서의 위상(경하, 만해, 용성 등 근대 고승에 비교하여)', 홍신선 교수가 '석전이 현대 시인 문장자에게 끼친 영향' 등을 발표한다. 또한 10월 8~ 23일까지 동국대 도서관 일원

에서는 석전 박한영 스님의 유품 전시전도 함께 진행된다.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언제나 지역과 함께 해온 선운사에서 이번에도 지역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문화제도 즐기고 절정에 이른 꽃무릇도 감상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S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방의 관객들을 직접 찾아나서 소통하는 음악프로그램으로 선운사 산사음악회는 추후 편성돼 방송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 종교 공세에 적극 대처할 터”

총무원장상 수상 김진수 前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더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라는 경책으로 알고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前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사진)이 9월 8~9일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포교사단 팔계계 수계실천대회에서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1년 365일 중 200일을 불교 관련 일을 할 정도로 익산 지역 불교 포교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야전사령관이다.

김 거사는 이리불교대학 부학장을 비롯 익산 관음사 일요법회, 군산 교도소 법회, 군법당,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등에서 다양한 소임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1990년 군산교도소 교정교화위원으로 출발, 20년 동안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도소를 방문 교화활동에 매달리고 있다. 자동차 정비 교육 등 재소자들의 취업 훈련에 힘쓰고 있는 것은 물론 장애인 재소자들의 직업재활관에도 출장하고 있다.

일요일에 김 거사를 만나려면 군법당에 가야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7공수여단, 육군 부사관학교, 김제 해안대대의 군불자들을 위한 포교활동도 열심히 한다. 익산 인구의 40%가 개신교 신자이고 월불교의 적극적인 포교공세 속에 자칫 불교가 제3종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실정을 감안하면 김 거사의 활동은 독보적이다. “이제는 단순한 불자를 넘어 불교를 바



로 알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님들과 함께 불자들이 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웃종교의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익산 관음사가 있기까지 김 거사의 역할은 컸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지은 관음사 건물이 남아 불자들이 불

군포교·교도소 교정교화 등 활발한 포교 활동 공로 '인정'

편해 하자 신축불사 집행위원장으로 화주 역할을 자처 3층 건물 불사를 주도한 것이다. 2008년부터 4년간 포교사단 지역단장을 맡아 전북 지역 곳곳의 포교현장을 누비기도 한 김 거사는 이제 새로운 서원을 세웠다. 그는 “익산지역에 불교유치원, 어린이집, 불교장래예식장을 설립하고 불교 문화강좌를 개설 익산 시민들에게 불교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것이 꿈”이라며 계획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죽림사 입구 폐기물 처리장 '안돼'

사찰과 주민들 반대 시위

16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사찰 입구에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찰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주)전남산업(대표 이갑순)은 나주 죽림사 입구 인근에 위치한 전남 나주 남평읍 풍림리 일대에 863㎡면적의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를 계획하고, 월 5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6일 실시된 폐기물 처리 반대 시위 장면

이에 대해 죽림사(주지 범룡)와 나주 남평 주민 300여 명은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 설치와 사찰의 수행환경 훼손과 마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6일 반대집회에 나섰다.

(주)전남산업은 지난 2011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건축 허가청인 나주시에서 건축허가 처리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나주시는 항고를 하여 현재 법정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창고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면, 대도시 소비자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장 인근에서 반입되는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죽림사 주지 범룡스님은 “민간사업자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찰과 마을을 죽이는 것과 같다”며 “특히 매일 수 십대의 트럭이 의료폐기물을 싣고 사찰입구와 마을을 헤치고 다니면 사찰과 마을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불식 쌀 모아 소외 이웃 도와

송광사 지역아동센터에 쌀 200포 전달

하계수련회 수련생들이 오후불식(점심 이후 단식)에 참여해 아끼둔 쌀 200포를 지역 아동센터에 기증해 눈길을 끈다.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지난 9월 4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쌀 기증식을 갖고 순천지역 아동센터 43개소에 전달했다.



송광사 지역 아동센터 쌀 기증 전달식

이 자리에는 송광사 주지 무상스님, 심일섭 복지국장(순천시), 허종광 회장(순천 아동센터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수련회에 매회 100명씩 4차에 걸쳐 400여명이 1600기의 단식을 통해 모은 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500여 명의 아동에게 제공된다. 무상스님은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수련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의 뜻이 쌀 한 톨한 톨에 담겨있다”며 “지역 아동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송광사는 지역민들과 늘 함께 하는 사찰로 지역민들을 찾아가는 사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아동센터장들은 “센터 아이들이

사찰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부덕 소장(개복재가 지역아동센터)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해주었지만, 종교단체에서 받은 기부는 처음”이라며 “방과 후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저녁 식재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에는 현재 43개소의 아동센터에 1,5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로부터 인건비와 일정 관리비만 지원되어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순례대회, 순례지로 '사찰' 추가

승암사·동고사 등 포함

오는 11월 전북 전주일원에서 열리는 세계순례대회가 특정 종교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분지 보도와 관련 대회 조직위가 불교관련 성지와 인물을 대폭추가할 예정이다.(분지903호 세계순례대회 특정종교행사로 변질우려)

대회조직위원회 불교측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윤천스님(남원 선원사 주지)을 비

롯한 조직위원과 집행위원들은 9월 1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최종 문제를 제기한 분지 전북지사에 이와 관련한 자료제공과 관련조사를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지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한 사찰 사진과 인물에 대한 자료를 대회조직위 불교측 위원에게 전달해 순례대회 코스에 승암사, 동고사 등 사찰이 포함되도록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타국 생활 올바른 소비법 '중요'

소비자시민모임 다문화가정 교육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9월 1일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가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소비자의 의미와 8대 권리', '소비자의 3대 책무'에 대한 소비자본법이 설명됐다. 특히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통신판매를 통해 피해를 많

이 입는 이주여성들에게 올바른 청약절차 방법과 기술들이 설명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반비화(29, 베트남)씨는 “한국에 온지 8년차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모르고 지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입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쳐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된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시킨 두 줄에 매듭을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뒤로 기법계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를 살짝 지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